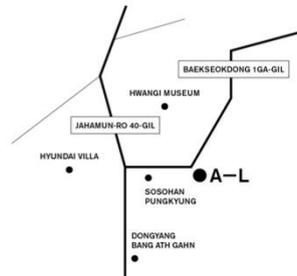


[Press Release] 총 7쪽

## 류노아 개인전 《Waiting Room》

류노아  
Noah RyuWaiting Room  
2022.5.18-5.31

A-L

2F, 45 Baekseok-dong 1ga-gil,  
Jongno-gu, Seoul, Korea  
+82-2-395-8135  
<http://a-lounge.kr>  
[info@a-lounge.kr](mailto:info@a-lounge.kr)Tuesday to Saturday:  
11:00 - 18:00  
Sunday & Monday: Closed  
별도의 오프닝 리셉션은 없음

## ○ 전시 개요

- 2013년 제 2회 종근당 예술지상을 받은 류노아 작가
- 2015년-2016년 라익스아카데미(Rijksakademie), 2018년 라이프치히 국제 예술 프로그램(Leipzig international art programme)을 거친 이후 귀국하여 갖는 첫 번째 개인전
- 영속한 시간과 대비되는 삶의 유한함을 큰 주제로 하는 유화 약 10 여 점과 2018년에 제작한 연필 드로잉이 함께 소개될 예정

전 시 제 목: **Waiting Room**

참 여 작 가: 류노아 Noah Ryu

일 정: 2022년 5월 18일(수) – 2022년 5월 31일(화)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문의: 02-395-8135, 이승민 대표: 010-5222-8135)

개 관 시 간: 화-토, 11am-6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 이 트: [www.a-lounge.kr](http://www.a-lounge.kr)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별도의 오프닝 리셉션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Press Inquiries: 최하림 어시스턴트 디렉터 ([summerforest@a-lounge.kr](mailto:summerforest@a-lounge.kr), 02-395-8135)

## ○ 전시 내용

에이라운지(A-Lounge)는 2022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이 주간 류노아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수학한 뒤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개인전으로, 이번 전시는 기존의 작업과는 사뭇 달라진 신작들은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의 큰 주제는 영속하는 시간과 대비되는 육체의 한계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깨달음에서 출발한다. 전시 제목 "Waiting Room(대기실)"도 탄생에서 죽음으로의 예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의 유한한 육신을 암시한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인간과 자연, 또는 예술품을 반복적으로 대조하며 내러티브를 전달한다. 동명의 작품에 그려진 반라의 남성들은 <수행자들 *Ascetics*>에서 로마식 욕탕에 앉아 나가지도 못한 채 힘겹게 열기를 견뎌내고 있는 인물들과 같이 고단하고 무료한 듯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뒤로는 자신의 젊음을 만끽하는 여성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욕탕 밖 너른 정원에는 건강한 인체 동상이 세워져 있어 죽음 너머의 영생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 부여된 인간의 고단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작가는 고대의 유물이나 이전 시기 회화의 도상 등을 자주 빌려와 화면 속에 재창조한다. 특정한 알레고리를 의도적으로 답습하기보다는 시간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작가의 손을 거쳐 이곳 저곳 배치한다. 때문에 작품 속에는 시간의 기호들이 여러 겹으로 켜켜이 포개져 있다. 가장 최근에 몰두하고 있는 <연습 *Portal*>과 같은 화면이 분할된 작업들은 제목 그대로 시간의 차원을 넘나드는 출입구(Portal)로서 류노아의 작업이 갖는 특성을 부각한다. 시공을 초월하는 대상들은 동양화과 출신 작가의 세밀한 필치로 화면 속에 촘촘하게 뒤섞여 신화적 또는 초현실적 공간을 창출하고, 압착된 평면 너머의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관람자를 초대한다.

《Waiting Room》에는 유화 약 10 여 점과 2018년에 제작한 연필 드로잉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 ○ 작가 소개

### 류노아 (B.1984)

류노아는 서울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암스테르담의 라익스아카데미(Rijksakademie)에서 수학한 뒤 2018년 라이프치히 국제 예술 프로그램(Leipzig international art programme)에 참여했다. 2010년 브레인 팩토리를 시작으로 살롱 드 에이치(2018), 브뤼셀의 c-o-m-p-o-s-i-t-e(2016)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구경꾼들>(두산 갤러리, 2014), <종근당 예술지상 2회 수상전>(가나 인사아트센터, 2015), <회화의 시간>(세종미술관, 2019) 등의 단체전에 활발히 참가해왔다. 2013년 제 2회 종근당 예술지상과 2016년 네덜란드의 버닝 브롱어스 상(Buning Brongers Prijzen)을 수상한 바 있다.

○ 대표 작품



1. 류노아, Paradise Lost, 140x200cm, oil on canvas, 2021



2. 류노아, Waiting Room, 125x160cm, oil on canvas, 2020



3. 류노아, 1907, 140x100cm, oil on canvas, 2022



4. 류노아, 금쟁반 *Gold Plate*, 50x60cm,  
oil on canvas, 2020



5. 류노아, 금화병 *Gold Vase*, 50x60cm,  
oil on canvas, 2021



6. 류노아, 연습 *Portal*, 24x30cm,  
oil on canvas, 2022

\*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 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Seoul